



특집 \_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재외국민 보호' 중요성 더 커져  
화제 \_ '교민 철수' 우한 한인회장 "국기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로, 세계로-재외동포와 함께

우리말로 제작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네 개 부문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비영어권의 영화가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은 영화사를 넘어 문화사에 남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상식 생중계 방송을 보면서 '한국(Korea)'이라는 말이 터져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으며 또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은 우리말로 지은 노래로 활동하여 2019년 빌보드 최고그룹상을 받았습니다. 가까이는 동아시아부터 멀게는 지구 반대편 미주대륙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 예술가들의 활약을 볼 수 있고, 한국 대중가요를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인과 한국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21세기 한국의 세계화,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19세기 말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 곳곳에 정착한 우리 재외동포들의 이주(코리안 디아스포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들은 인류의 전파와 홍보의 선구자로서, 짧게는 1세대, 길게는 5세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 거주하며 우리의 음식과 풍습을 현지 문화와 결합하고 융합하여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현지인들은 오래 전부터 재외동포와 함께 어울리고 생활하면서 한국문화를 접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포들의 이주가 시작된 지 100여 년이 흐른 지금, 내국민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와 교류하고 또 그분들이 간직해온 옛 문화를 공유하고 널리 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뿌리,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만큼 내외동포들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매개체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한국문화의 핵심이며 근간인 한국어 교육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4, 5세대 동포들을 위해 유년기부터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국내 및 재외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60개국에서 180여 개소의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약 1,800개소의 한글학교에서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한 재외동포들의 생활사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인 이주 역사가 100년에 이르면서, 이국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1세대 재외동포들의 발자취와 생활문화를 알려주는 소중한 기록과 자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0년대부터 세계 각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재외동포들의 생활사를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그분들의 생활문화를 알리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 연구자가 중앙아시아 재외동포들의 실제 생활현장에서 동포들과 함께 각종 자료와 유산을 수집하여, 우리 문화가 현지 문화와 융합하여 다채롭게 발전한 모습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750만 재외동포는 우리 문화를 현지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한국문화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뻗어나가는 21세기에 우리나라와 세계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들과 함께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말과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동시에 현지 문화와 접목하여 더욱 발전 시킴으로써, 우리 문화는 물론 세계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



04



06



13

- 02 권두언      문화로, 세계로-재외동포와 함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04 특집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재외국민 보호' 중요성 더 커져
- 06 화제      '교민 철수' 우한 한인회장 "국가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 08 기획      새로운 100년을 향해 출발하는 프랑스 한인사회
- 10 글로벌 코리안      밀워키 벅스 주주 된 주세훈 씨... "앞으로 한인 2세 위해 열정 쏟을 것"  
15년째 개도국 의료현장 누비며 활동해온 박세업 본부장  
美 슈퍼볼 개막 행사에서 수화 공연한 한인 2세 크리스틴 선 김
- 12 한민족 공감 1      '해외동포들 떡국 먹고 전통놀이 즐기고'... 설 축제 '몽성'
- 13 한민족 공감 2      고려인 문화예술 기록, 국가지정기록물로 보존된다
- 14 한민족 공감 3      광복군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중국인 독립유공자 쑤징허 별세
- 15 주목! 차세대      "차세대는 보이지 않는 무역 통해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해야"
- 16 동포소식      선관위 "21대 총선 재외선거 신고·신청자 17만7천여 명" 외
- 20 유공 동포      재계 5위 롯데그룹 일군 재일동포 출신 사업가 신격호 회장
- 21 지구촌 통신문      14일 만에 만난 세상은 '격리도시'... 놀랍도록 바뀐 상하이 거리
- 22 동포문학      종착역  
전엘레나 카자흐스탄
- 23 동포 캘린더      유럽 한인 차세대 한국어 응변대회, 3월 크로아티아서 개최 외
- 24 OKF 뉴스      "영화 '기생충' 처럼 미 할리우드 영화계 한인들 성과 내기를 기대"
- 25 기고문      재외동포 차세대를 '글로벌넥' (Glonacal) 인재로 키우자  
권오현 서울대 교수,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 센터장
- 26 재단공지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재외국민 보호’ 중요성 더 커져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조력법’ 관심… 내년 1월 16일 시행



1



2

1.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그 인근 지역에서 철수한 교민들이 1월 31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대한항공 전세기에서 내리고 있다.
2.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운 공군 3호기(VCN-235)가 2월 19일 새벽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탑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청사 안으로 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인접한 중국에서 발생한 데다 감염률이 높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 국내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정부는 1월 31일과 2월 1일, 12일 3차례 걸쳐 전세기를 보내 신종 코로나 발생지인 우한(武漢) 일대에 거주하던 재외국민과 일부 중국인 가족 등 총 848명을 귀국, 격리 조치했다. 우한에는 여전히 100여 명의 교민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정부는 2월 18일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한국인 이송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를 투입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공군 3호기는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 14명 가운데 귀국을 희망한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우고 다음 날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 잇따라 터지는 재외국민 사건·사고

코로나19 사태는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업무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이번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른 사건·사고는 해마다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해 5월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과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2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이니호가 추돌사고로 침몰해 7명만 구조됐다. 곧바로 이어진 수색 작업과 선체 인양 등을 거쳐 28명의 실종자 가운데 27명이 시신으로 발견됐고 1명은 찾지 못했다.

2017년 3월 31일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인 선원 16명을 태운 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레이지호는 아직도 사고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실종자 수색이나 유해 수습에 대한 정부 책임의 한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12월 미국 서부 그랜드캐니언을 여행하다가 추락한 대학생의 귀환을 도와달라는 글이 지난해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자,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라는 주장과 “개인 과실을 왜 국가가 책임지나”라는 반론이 맞서 사이버공간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2018년 10월 25일 초강력 태풍 ‘위투’가 미국령 사이판을 강타해 2,000명에 가까운 한국인 여행객의 발이 묶이고 이재민 신세가 되자, 정부는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외교부 신속대응팀 급파, 공군 수송기 투입, 구호물품 지원 등을 결

정했다. 한국인 여행객들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박수를 보냈고 현지 외국인 여행객들의 부러움을 샀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2010년 1,000만 명, 2016년 2,0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18년 2,869만 명을 기록했으며 2019년 3,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 장기체류 재외국민도 2016년 말 기준으로 267만여 명에 이른다.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이 늘어나다 보니 사건·사고 건수도 2011년 7,808건, 2014년 1만664건, 2018년 2만100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늘어났다.

### 마침내 햇빛 본 영사조력법… 비용 부담 문제도 규정

이러한 추세 속에 코로나19와 같은 초대형 바이러스 감염 사태까지 터지면서 내년 초 시행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領事助力法)이 관심을 모은다. 국회는 2018년 12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률안 제안 이유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위급 상황 시 적절한 보호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었다.

10여 년에 걸친 입법 시도가 뒤늦게나마 빛을 본 것은 재외국민의 안전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함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 여야가 의견일치를 본 덕택이다.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도 법률 제정에 협력하고 나섰다. 영사 조력법은 2019년 1월 15일 공포됐으며 부칙에 따라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사조력법은 모두 4개 장에 걸쳐 23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심의할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제2장). 또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영사조력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영사조력 과정에서 드는 경비는 재외국민이 부담하되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는 원칙도 세웠다.(제3장 18,19조)

### 외교부, “영사조력법 제정으로 더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가능해져”

외교부는 법률 공포에 맞춰 낸 보도자료에서 “법을 제정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라는 헌법상 국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여행 정보, 무자력(無資力)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 해외 송금 등 기존 재외국민 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위 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 정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인력과 예산 등 관련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령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영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관심 대학들과의 교육 분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

3.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과 그 인근 지역에서 철수한 교민들이 1월 31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해 생활관에 들어가고 있다.
4. 외교부는 영사조력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17일, 12월 1일 2차례에 걸쳐 국립외교원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범위와 방식'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5. 한국인 관광객 33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이니호가 침몰한 헝가리 다뉴브 강, 사고 발생 보름이 지난 지난해 6월 15일, 사고 지점 강가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과 촛불이 놓여 있다.



# ‘교민 철수’ 우한 한인회장 “국가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우한 밖 봉쇄지역서 오는 교민들 길 터주기, 한 편의 드라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우한(武漢) 등 후베이(湖北)성 일대에 고립됐던 재외국민과 일부 중국인 가족(67명) 등 총 848 명이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투입한 전세기를 타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급박한 상황에서 대규모 재외국민(동포) 철수가 순조롭게 이뤄진 데는 현지 한국 영사관 관계자와 우한에 남아 이동을 도운 교민들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 우한이 위치한 중국 후베이성 최덕기 한인회장의 말이 이를 대변한다. 최 회장은 1, 2차 철수가 이뤄진 직후인 2월 1일 “교민 철수에 애를 써 주신 분들을 보면서 국가를 느꼈다”고 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최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 외교관들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우한에 남아 다른 교민의 이동을 도운 교민들 등 많은 이의 헌신이 없었다면 전례 없는 대규모의 긴급 철수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무사 이륙’ 후 울어버린 우한 영사... 드라마 같은 막힌 길 뚫기

우한 현지에서 교민 철수 업무 실무를 책임진 정다운 영사(38), 그는 교민을 태운 2차 전세기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된 우한 텐허(天河)공항에서 이륙하고 나서 교민들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이렇게 감사의 인사말을 남겼다. “전세기에 333명이 무사히 탑승한 후 본부에 이륙 전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평평 울었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경찰관으로 일하다가 우한 총영사관에 나와 교민 보호 담당 영사로 3년간 일해온 정 영사는 총영사관의 동료 영사들과 현지인 직원들, 교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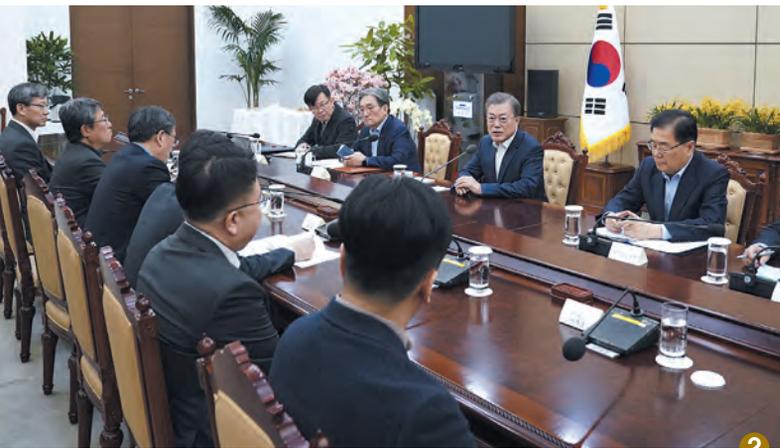
1

이번 대규모 철수 과정에 참여한 이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표했다. 부인과 두 자녀를 이번 전세기편으로 들여보내고 혼자 우한에 남은 그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감추지 못했다.

정 영사는 “9살, 7살 천둥벌거숭이 둘 데리고 혼자 비행기 타는데 (아내에게) 잘 가라는 배웅인사도 못 했다”며 “2인 1실 좁은 격리실에 아이 둘과 같이 힘들어하고 있을 아내 생각이 갑자기 나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우한 한인사회에 따르면 1, 2차 전세기 투입으로 700명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정 영사 등 총영사관 관계자들과 잔류 교민들은 한 명이라도 더 비행기에 태우기 위해 며칠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 “한 명이라도 더”... 총영사관·교민들 협력해 길에 고립된 수십 명 ‘구출’

가장 큰 문제는 후베이 성 전체가 봉쇄돼 도시 간, 도시 내 교통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우한 외곽의 다른 봉쇄 도시에 있는 교민들을 안전하게 전세기가 출발하는 우한까지 오게 하는 일이었다. 전세기 탑승을 신청한



2



3

많은 교민이 후베이 성의 여러 도시에서 각각 어렵게 차를 구해 우한으로 향했지만, 주요 길목에서 공간의 검문소에 막히는 일이 다반사였다. 더 큰 문제는 우한 외곽의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우한 사람들의 진입을 막는다면 '자경단'을 조직해 지역 도로를 각종 장애물로 차단한 것이었다.

교민들은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길이 막힌 이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회로를 신속히 공유했다. 그래도 길이 막히면 한인회는 상황을 취합·정리해 우한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한 총영사관은 후베이 성 정부가 전세기에 탑승하는 우리 교민들의 이동을 위한 통행증을 내주도록 했다. 하지만 각 지방의 검문소에서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곳도 많았다. 총영사관 관계자들은 길이 막힌 우리 교민을 막고 있는 도시의 외사 판공실이나 공간에 다시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해 길을 열어주도록 조치를 했다.

공권력과 무관한 자경대가 길을 막을 때는 해당 지역 공간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출동해 길을 열어주도록 부탁했다. 이런 방식으로 뚫은 길이 최소 20여 곳. 우한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전세기 탑승자 70여 명이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통해 한국행 전세기를 탈 수 있는 우한 텐허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삶의 터전인 우한에 남기로 한 교민들의 봉사 정신도 빛이 났다. 우한에 거주하는 일부 교민들은 다른 도시에서 급하게 나와 거처가 없는 교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전세기 탑승을 위한 도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자기 차를 끌고 다니며 교민들을 곳곳으로 실어날랐다.

그런가하면 우한의 교통이 사실상 마비되자 교민 자원봉사자들은 정부가 긴급히 보낸 마스크를 각 가정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전달했다. 2월 5일 우한 교민들에 따르면 후베이성 한인회 소속 자원봉사단은 최근 며칠간 직접 차량을 운전하면서 90명에 가까운 우한 시내 교민들에게 직접 마스크, 체온계 등 물품을 전달했다. 한인회 최덕기 회장은 "총영사관에 아주 가까이 사는 분들 외에는 지원 물품을 받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남은 교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고통에 떨 때 흔쾌히 봉사에 나서준 교민들께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 교민수송 우한 부총영사 등 격려... "국민도 감동"

문재인 대통령은 2월 3일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 총영사관에서 근무



4

중인 이광호 부총영사와 정다운 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총영사관 직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대통령인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모두 감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인회에도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면서 "화물기 운항 시에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이 공간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영사와 정 영사는 "상황 종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영사는 "3월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지만 연장근무를 요청해둔 상태"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참]**

- 1월 29일 중국 후베이 성의 우한 시로 이어지는 도로 위에 장애물과 흙과 자갈 등이 쌓여 있다. 이는 당국이 아닌 인근 주민들이 우한에서 오는 사람의 유입을 막는다면 설치한 것이다. 우한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이런 장애물들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전문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 1월 31일 밤 우한 총영사관의 정다운 영사(맨 오른쪽)가 태극기가 새겨진 노란 조끼를 입고 중국 우한 텐허국제공항에서 전세기 탑승을 기다리는 교민들을 살펴보고 있다.
- 최덕기 중국 후베이성 한인회장은 2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한 교민 철수를 지켜보며 "국가를 느꼈다"고 말했다.

# 새로운 100년을 향해 출발하는 프랑스 한인사회

## 한인 1세대 37명, 1919년 러시아 무르만스크서 영국 거쳐 파리 도착

**일**제의 수탈과 박해를 피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넌 한인 가운데 500여 명은 1913년 중국 만주나 러시아 연해주에서 1만km 넘게 떨어진 러시아 서부 최북단 무르만스크에 발을 디뎠다. 이들은 철도 부설 공사장에서 6년여 동안 고된 노역을 한 뒤, 1차대전 직후 일본으로 강제송환될 처지에 놓였다. 러시아 혁명과 내전에 개입해 이곳을 점령한 영국이 동맹국인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무르만스크 한인 노동자 200여 명은 1919년 10월 12일 귀환하는 영국군을 따라 산타엘라나호를 타고 영국 에든버러에 도착했다. 이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 황기환은 일본 송환을 막기 위해 현지로 달려갔다. 그는 영국 관계자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한편, 프랑스 당국자에게 간청해 일부를 프랑스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 프랑스한인회 모태 재법한국민회, 1919년 11월 19일 출범

르아브르 항을 거쳐 파리에 도착한 인원은 37명이었다. 프랑스 노동부는 11월 19일 파리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소도시 쉬프의 철도 복구공사와 묘지 조성 사업에 이들 한인을 투입했다. 프랑스는 물론 유럽 이주 한인의 1세대인 이들은 쉬프에서 재법한국민회를 결성했다. 당시에는 프랑스를 불란서(佛蘭西) 대신 법국(法國)이라고 불렀다. 프랑스한인회는 재법한국민회를 모태로 삼고 있다. 2019년 11월 19일은 재법한국민회 출범 100주년 기념일이었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도 프랑스 땅을 밟은 한국인이 있었다. 기록상으로는 홍종우가 최초다. 1886년 조·불 수호조약 체결 때 비서관으로 참여했다가 1890년 12월부터 3년간 프랑스에 머물며 ‘춘향전’ 번안을 돕고 한국 역사를 강연했다. 1891년에는 궁중 무희 리심(리진)이 1891년 6월 초대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 플랑시의 귀국길에 동행해 결혼했다. 이를 소재로 작가 신경숙과 김탁환은 각각 소설 ‘리진’과 ‘파리의 조선 궁녀 리심’을 펴냈다.

외교관으로는 프랑스·러시아·오스트리아 겸임 공사로 임명된 이범진이 1900년 4월 처음 프랑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고, 뒤이어 민영찬이 대한제국 대표단장으로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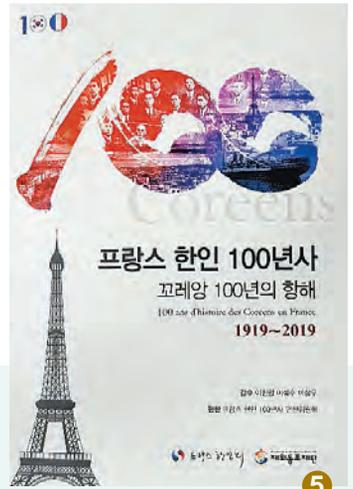


1. 한인 노동자들을 동원해 조성한 프랑스 쉬프의 1차대전 전사자 공동묘지. (재불 독립운동사 연구자 이장규 씨 제공)  
2. 지난해 11월 1일 프랑스 쉬프에서 열린 프랑스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식에서 한우성(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조형물을 제막하고 있다. 재외동포 백승수 조각가는 조국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한인들의 안타까움을 한쪽 날개로 형상화했다. (프랑스한인회 제공)





2176 1919	Pei Yung ho	Espagnol	Recrutés carte verte	Swiss
2176 1919	Garcia Rodolfo	Espagnol	Recrutés carte verte	Swiss
2176 1919	Pei Yung ho	Coreen	Recrutés carte verte	Swiss
2176 1919	Pak Sun Oo	Coreen	Recrutés carte verte	Swiss
2176 1919	Cheng Teng Tche	Coreen	Recrutés carte verte	Swiss



## 프랑스 한인 피입양인 1만천207명… 미국 이어 두 번째로 많아

1918년 11월 1차대전의 총성이 멎고 이듬해 1월부터 파리에서 전후 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강화회의가 열리자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대표를 파견해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열거에 알리고자 했다. 3월 13일 김규식이 가장 먼저 파리에 도착해 한국대표관을 개설해 외교 활동에 나섰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후에는 한국대표관을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로 개칭하고 이관용과 황기환을 각각 부위원장과 서기장에 임명했다.

황기환의 도움으로 프랑스에 정착한 한인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임정 활동에 협조적이었다. 홍재하 초대 재법한국민회장을 중심으로 매달 급료의 일부를 파리위원부에 기탁했으며, 1920년 유럽 각지의 한인을 초청해 3·1절 기념식을 열었다. 1920년 1월 프랑스에 도착한 허정·나기하 등 유학생들도 가세했다. 하원의원 루이 마랭은 1921년 6월 한국친우회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인으로는 유일하게 건국훈장(애국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황기환이 미국으로 떠나고 파리위원부가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임정과 연결 통로는 끊기고 말았다. 그래도 홍재하를 비롯한 한인들은 광복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독립운동을 이어갔고, 재법한국민회는 파리한인친목회·재법한인회로 이름을 바꾸며 프랑스 한인들의 중심점 역할을 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프랑스는 유엔, 미국, 영국에 이어 4번째로 1949년 2월 15일 정식 승인했다. 일제강점기 유럽에서 처음 한인의 정착을 허용했던 프랑스는 광복 후에도 유학생을 시작으로 한국인을 받아들였다. 프랑스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한국인 아이를 입양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2만9천167명으로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많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 4위에 해당한다. 외국 국적자는 1만2천397명이고, 영주권자(3천105명), 일반체류자(6천717명), 유학생(6천948명)을 합쳐 재외국민은 1만6천770명이다. 외국 국적자 가운데는 1만1천207명이 피입양인이다.

## 프랑스 소도시 쉬프에 한인 도착 100주년 기념 조형물 세워

지난해 11월 1일 쉬프에서는 최종문 주프랑스 한국대사,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나상원 프랑스한인회장, 장 레이몽 쉬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곳에는 한인 도착 100

주년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기념비도 세워졌다. 11월 4일 파리에서는 유럽한인총연합회 주최로 유럽 한인 이주 100주년 경축 행사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프랑스한인회와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2월 '프랑스 한인 100년사-고레앙 100년의 항해'를 펴내고 서울과 파리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프랑스는 천주교 선교사들의 순교와 군대의 침입(병인양요)이라는 아픈 역사로 우리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준 우방이다. 6·25 전쟁 때 지상군을 파견하는가 하면 1964년 팔당수력발전소 건설 자금 1천만 달러를 원조하고 1968년부터 한국 유학생들에게 정부 장학금을 지급했다. 문화 예술의 나라답게 미술·음악·영화·패션 등의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프랑스 젊은이들이 K-팝과 한식 등 한류에 열광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프랑스인도 지난해 9월 현재 유학생 1천993명을 포함해 7천930명에 이른다. 서울에는 KTX 건설 때 파견된 기술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프랑스인촌 서래마을도 있다. 프랑스 한인 이민사는 새로운 100년을 향한 대장정(大長征)에 올랐다. **[참]**

3. 재법한국민회가 1920년 3월 1일 프랑스 쉬프에서 개최한 3·1운동 1주년 기념식. 프랑스 유학생 나기하의 회고록 '비바람이 몰아쳐도' (1982·양서각)에 수록된 사진이다.
4. 프랑스의 1차대전 격전지 마른 지방에서 전후복구에 참여하며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활동을 도운 한인 노동자들의 명단. 이 사진의 자료에서는 한국인(Coreen)인 배영호(Pei Yung ho), 박선우(Pak Sun Oo), 장동채(Cheng Teng Tche), 하진서(Ha Jin Sey)가 1919년 10월 19일 쉬프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진 이장규 씨 제공)
5. 프랑스한인회와 재외동포재단이 지난해 펴낸 '프랑스 한인 100년사-고레앙 100년의 항해' 표지.



밀워키 벅스 주주 된 주세훈 씨  
“앞으로 한인 2세 위해  
열정 쏟을 것”

## 샌드위치 팔던 재미동포, 한인 첫 NBA구단주 성공신화 썼다

“미국 프로농구(NBA) 밀워키 벅스의 여러 구단주 가운데 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돈과 명예를 얻는다는 그 이상의 의미, 즉 미국 주류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가장 큰 샌드위치 전문점 ‘렌위치’(과거 ‘레니스’)를 운영하는 재미동포 주세훈(미국명 레니 주·56) 대표는 “반년 넘게 NBA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지난해 밀워키 벅스의 주주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대표는 1월 22일 “밀워키뿐만 아니라 30개 구단 가운데 한인 구단주는 제가 유일할 것”이라며 “‘아메리칸 드림’ 가운데 선망의 대상인 NBA 구단주는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주류사회를 움직이는 유대인 이너서클의 일원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3년 미국에 이민해 6년 후 맨해튼에 샌드위치 가게를 열면서 30년째 외길을 걷고 있는 사업가다. 지금은 뉴욕 지역에만 직영 매장 19개를 냈고, 연간 400만 개의 샌드위치를 팔아 5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주 대표는 사업하면서 한인사회에 나오지 않고 철저하게 주류사회와 어울렸다. 특히 유대인 출신 재력가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인맥 관리를 했다.

주 대표가 이룬 꿈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물이다. 그는 20살 때 가족과 함께 태평양을 건넜다. 낮에는 대학을 다니고 밤에는 택시 운전을 비롯해 생선가게 점원, 채소 운반, 샌드위치 가게 아르바이트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았다. ‘내일은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악착같이 돈을 모은 그는 1989년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에 49.6㎡(약 15평) 규모의 샌드위치 가게 ‘레니스’를 열었다. 매일 오전 5시에 가게에 나와 준비하고 6시에 오픈하면 오후 9시 문 닫을 때까지 쉬지 않고 샌드위치를 판 것이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1년에 꼭 한 번씩은 한국을 찾는 주 대표는 앞으로도 샌드위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국인으로 남고 싶어 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한인사회에도 눈을 돌리겠다. 특히 1.5세와 2세들을 위해서 열정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한 일, 특별한 의미 있어”

아프리카 등지에서 국제보건전문가로 활약해온 박세업(59) 글로벌케어 북아프리카본부장이 올해 ‘이태석 봉사상’을 받았다. 부산시는 1월 9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9회 이태석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박 본부장은 이태석 신부와 같은 해 태어나 부산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40세에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후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다. 1998년 구개열 환자를 위한 베트남 의료봉사 참여를 비롯해 국내는 물론 몽골과 아제르바이잔 등 정기적인 해외 의료봉사에 참여했다. 아프가니스탄, 모로코, 모리타니 등에서 15년째 의료현장을 누비며 외과 의사와 의료 행정가 등 국제보건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그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고통받는 결핵, 영양 부족, 모성 보건 등에 관심을 두고 더



많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초 의료 혜택을 주고 싶은 바람으로 미국 존스 홉킨스대에서 국제보건 석사 과정을 마치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 바그람에서는 한국 의료직업훈련팀 한국 병원장으로 부임해 환자들을 돌봤다. 그의 아내 역시 현지 의료행정요원으로 활동해 부부가 의료봉사를 함께했다. 모로코와 모리타니에서는 스마트 약 상자를 환자 집에 설치해 복용률을 높여서 치료하는 보건사업도 벌였다.

박 본부장은 “결핵으로 가정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한 이들이 이 사업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돌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석 신부님과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의료인으로 그분이 생명을 쏟았던 아프리카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의료라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의 언어와 문화, 삶의 방식까지 배우며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태석 봉사상은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마을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다 숨진 부산 출신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제정됐다.

## “내가 수화(手話) 공연에 나선 것은 애국심과 저항의 표출”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 ‘슈퍼볼’에서 한인 2세가 아시아인으로는 첫 수화(手話) 공연을 선보여 화제가 됐다. 주인공은 사운드 아티스트 크리스틴 선 김(40). 그는 2월 2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하드락 스타디움에서 개막한 제54회 슈퍼볼 행사에 가수인 데미 로바토의 미국 국가 제창 때 나와 수화로 퍼포먼스 했다. 김 씨는 다음날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공연을 수락하게 된 배경과 공연 이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왜 슈퍼볼에서 청각장애인 시청자를 위해 공연했는가”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미국에 대한 애국심과 장애인으로서의 저항을 표출하기 위해 공연에 나섰다지만, 기쁨과 동시에 좌절을 맛보게 됐다고 밝혔다.

자신을 “이민자의 자녀이자, 피난민의 손자이며, 청각장애를 가진 유색인종 여성 예술가이자 어머니”라고 소개한 김 씨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같은 권리를 누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공연 제안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국가와 전통 애국가 ‘아름다운 미국’ 두 곡을 수화로 공연한 그는 이후 방송을 보고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TV나 모바일로 시청자가 그의 수화를 볼 수 있었던 건 단 몇 초 뿐이고, 공연 대부분이 선수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화면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김 씨는 “청각장애인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돼 감격스러웠던 만큼 너무나 화가 났다”며 장애인으로서 투쟁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출신인 김 씨는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로체스터공대를 졸업하고, 스쿨 오브 비주얼아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출판업계에서 일하다 2008년 소리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을 보고 사운드 아티스트가 됐다.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그는 음악과 언어, 수화를 모티브로 한 회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치며 ‘소리를 활용하는 최고 예술가’라는 찬사 속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창**



15년째 개도국 의료현장 누비며 활동해온 박세업 본부장



美 슈퍼볼 개막 행사에서 수화 공연 한 한인 2세 크리스틴 선 김



# ‘해외동포들 떡국 먹고 전통놀이 즐기고’ ... 설 축제 ‘풍성’

## 김정숙 여사, 새해 맞아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에 감사편지

**1월** 25일 설날을 맞아 이국땅에서 사는 재외동포들은 설빔을 입고, 떡국을 서로 나눠 먹고, 우리 전통놀이를 즐기는 설맞이 축제를 즐겼다. 미국 시카고에서는 한인문화회관(회장 김윤태)과 한인여성회 공동주최로 ‘2020 설’ 행사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렸다. 200여 명의 한인 동포와 외국인인이 참석한 행사는 윷놀이, 한복 입어보기, 세배하기, 새해 소망 적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떡국, 잡채, 튀김 등 한국 음식이 마련되었다. 2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게 해줄 기회가 많지 않았던 동포들은 물론,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젊은 외국인들은 이날 다채로운 체험코너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한층 깊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입을 모았다.

LA한인회(회장 로라 전)는 1월 17일 LA한인회관에서 동포 어르신 500분을 모시고 설날행사를 개최했다. LA한인회는 한인들의 어려운 가계살림을 직접 도우려고 쌀과 스낵류, 떡국을 나눠주는 ‘설날 푸드뱅크’를 진행했다. 이날 설날행사에 앞서 올해 3대 현안인 2020센서스 인구조사, 미국선거, 한국의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의 재외국민선거를 홍보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이집트 한국문화원(원장 양상근)은 1월 23일 수도 카이로의 문화원 강당과 뒤뜰에서 이집트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설날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다. 100여 명의 이집트 현지인은 한국 설날의 의미와 풍습에 관한 발표자료를 본 뒤 한복 입고 세배하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겼다. 참가자들은 행사 마지막에 떡국, 모듬전, 불고기 등 한식을 먹었다.

뉴기니 섬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에서도 1월 25일 설을 맞아 한국인 근로자들이 모여 차례상을 차리고, 떡국을 나눠 먹었다. 파푸아에는 무림과 포스코, 코린도 등 3개 한국 기업의 사업장이 있고, 한국인 총 58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 기업은 산업 조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 설’ 행사 장면(위). 주이집트 한국문화원은 1월 23일 문화원 강당과 뒤뜰에서 이집트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설날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집트인들이 떡국, 모듬전 등 한식을 즐기는 모습(아래).

림, 팜 농장, 원목 사업을 하며, 3개 사업장에 고용된 현지인은 1만5천 명 수준이다.

카자흐스탄의 한인동포도 얼마티 카자흐국립대에서 ‘고려인 설날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보낸 격려·감사편지가 전달됐다. 지난해 4월 문 대통령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던 김 여사는 편지에서 “강건하고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한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자긍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을 떠나 멀리 있는 분들의 그리움 가득한 마음들이 떠오른다”며 “올 한 해도 희망의 씨를 뿌리고 키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창**

# 고려인 문화예술 기록, 국가지정기록물로 보존된다

문학 작가 육필원고 · 구전 가요 창가집 · 고려극장 사진첩 등 23권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등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를 이르는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영구보존된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고려인 문화예술 기록물 23권을 희소가치와 정보 가치를 지닌 국가지정기록물 1월 9일 지정했다. 해당 기록물은 고려인 1~2세대 한글문학 작가인 김기철(1960~1982) · 김해운(1935~1957) · 한진(1965~1989)의 육필원고 19권과 고려인 구전 가요를 수록한 창가집 원고 2권, '고려극장'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사진첩 2권 등 모두 23권이다.

김기철은 고려인 1세대 한글문학 작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체를 구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의 작품을 통해 고려인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배우이자 극작가로 활동한 김해운의 작품은 항일 노동운동, 강제이주 이후 집단농장 생활상 등을 보여준다.

'카레이스키 회곡' 문학을 대표하는 한진은 작품 '공포'에서 강제이주 사건을 밀도 있게 다뤘다. 베트남 전쟁 등 시대극부터 순수회곡까지 다양한 작품을 창작했다. 전명진과 리 알렉산드르가 1945년 생산한 창가집은 고려인 구전 가요를 수록한 가장 오래된 창가집으로 내용이 풍부하다.

현재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극장은 1932년 9월 9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문을 연 우리말 전문 연극극장으로 출발했다. 사진첩은 1934년부터 85년여의 극장 역사가 담긴 264매 분량의 사진과 출판물 등을 담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고려인 문화예술 기록물에 숭한 수난을 겪으면서도 정체성을 지키려는 민족의식이 담겼다고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고려인의 생활상과 공연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희곡 문학과 연극사 면에서도 높은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기록물을 모은 고려인 연구가 김병학(55) 씨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카자흐스탄에서 민간 한글학교 교사, 고려일보 기자 등으로 활동하며 1만 점이 넘는 고려인 기록물을 수집



▲ 고려인 1세대 한글문학 작가 김해운의 항일회곡 '동북선'.



◀ 1950년대 고려극장에서 공연한 음악회극 '농민유희'의 한 장면.(사진·고려인 연구가 김병학 씨 제공)

했다. 그는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고, 이들 자료의 역사적 가치·의미·근거 등을 정리해 국가지정기록물 추가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김 씨는 "고려인은 강제이주를 당하고 나서도 우리 문화와 모국어를 잊지 않고 지키고자 노력했다"며 "그 일환으로 남긴 작품을 정부가 중요한 기록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기록물이다. 보존·복원·정리사업·DB 구축 등을 지원해 후대에 전승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정기록물 1호는 유진오 선생의 제헌 헌법 초고다. 고려인 문화예술 기록물 추가지정으로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 등 13건으로 늘었다. **창**

# 광복군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중국인 독립유공자 쑤징허 별세

## 한인 탈출 도와 광복군 부대까지 호송... 문 대통령 조화

**일** 본강점기 때 중국에서 한국광복군의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중국인 독립운동 유공자 쑤징허(蘇景和) 선생이 2월 9일 10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유족에 따르면 쑤 선생은 상하이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졌다. 상하이 시 푸둥신 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던 쑤 선생은 평소 고령에도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지만 갑자기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외국 국적의 독립운동 유공자 중 마지막 생존자였다.

1918년 중국 허베이 성에서 출생한 쑤 선생은 당대 중국의 최고 명문 대학으로 손꼽히던 난징 중앙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한인 청년들과 인연을 맺었다. 학생 비밀결사 단체를 조직해 항일 활동을 펼치던 조일문(2016년 작고·전 건국대 총장) 지사와의 만남은 엘리트 청년이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일제가 한반도를 넘어 많은 중국 지역까지 집어삼킨 상황에서 청년 쑤징허와 조일문은 '항일로 나라를 되찾자'며 의기 투합했다.

이후 쑤 선생은 난징 내 일본군 동향 수집, 광복군 모병 활동, 광복군 입대 청년 호송 등의 다양한 비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난징을 점령한 일제 경찰의 감시가 심해지자 1944년을 전후해 세 차례에 걸쳐 한인 청년들을 탈출시켜 시안의 광복군 부대까지 호송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그의 도움을 받아 시안으로 탈출해 광복군에 합류한 한인 청년들은 줄잡아 100여 명.

그는 작년 3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이동 시키느라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며 "특히 많은 인원의 숙식 문제가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살아 있는 감회가 남다르다"고 돌아봤다. 하지만 이후 격변하는 현대사 속에서 이로 인한 큰 고초를 치러야 했다. 신중국 건국 직후인



일본군 점령지인 중국 난징에서 광복군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광복군에 입대하려는 한인 청년들을 시안까지 데려다주는 임무 등을 수행했던 쑤징허 선생. 왼쪽이 선생의 젊은 시절, 오른쪽은 작년 3월 자택에서 찍은 선생의 모습.

1950년 간부 선발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문화대혁명 시기 당시 적대 관계이던 '한국'을 도운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온 가족이 안후이 성 시골 농장으로 하방돼 생활하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한참 뒤에야 상하이로 돌아와 복직했으나 원래의 간부 직위로 대접받지 못하고 한직을 전전하다 퇴직했다.

1992년 한·중 수교 뒤에 조일문 지사 등 생사를 같이했던 옛 동지들과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199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면서 다소간의 위로를 받았다. 다만 외국 국적자여서 관련 법령상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유공자 연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다. 청년 시절 잠깐의 인연을 맺었지만, 한국에 늘 큰 관심을 보였다.

쑤 선생은 생전 인터뷰에서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분열된 한반도가 통일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쑤 선생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또 유족들에게는 별도의 위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

# “차세대는 보이지 않는 무역 통해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해야”

## 투자회사 창업한 30대 호주동포 신용하 솔로몬스 자산운용 대표

“한국과 대양주를 연결하는 유일무이한 아시아 전문 투자회사로 5년 내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2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투자회사 ‘솔로몬스 자산운용’을 창업한 신용하(32) 대표의 포부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차세대 위원회 임원 워크숍 참석차 방한한 그는 2월 5일 언론 인터뷰에서 “1년 만에 운용 자산규모를 3천억 원 정도로 키웠다”며 “호주는 물론 대양주 전역을 상대로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상품을 넘어 대한민국의 가치를 소개하는 것이 창업 정신”이라고 소개했다. 홍콩 출신의 금융인 파트너와 함께 운영하는 솔로몬스에는 직원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산관리 서비스, 기업투자 자문과 펀드 매니저, 자산조달 서비스, 벤처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 이 회사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호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조사와 펀딩, 지사 설립 등 인큐베이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 대표는 “한국 유망 중소기업이 대양주 시장에 진출하려면 호주 기업들의 투자, 금융 운용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글로벌 금융 기업들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손을 잡지 않기에 우리가 나서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인 경제인 1세대가 국산품 판매를 통해 모국 경제 발전을 견인했다면 자신과 같은 차세대는 기술과 자본 등 보이지 않는 무역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가 호주에서 창업한 것은 전 세계가 호주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호주 내 아시아 시장 영역이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그가 ‘호주통’이면서 글로벌 금융을 경험했기에 가능했다.

서울 출신인 그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 호주에 이민을 왔다. 현지 그리피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세계적인 금융그룹 맥쿼리 투자은행에 입사했다. 7년간 아시아 투자를 담당했고, JP 모건 금융 자산 투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직해 3년간 일하다 창업했다.



차세대 호주동포 신용하 ‘솔로몬 자산운용’ 대표, 아시아 전문 투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그의 포부다.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면서 대양주와 아시아 기업을 연결하고, 컨설팅하는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많이 만났고, 그런 규제를 풀어 한국과 아시아의 우수한 기업들이 대양주 시장과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창업하는 한국 청년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호주 한인사회의 성장 발전을 위해 펀드를 운용하고 싶다는 바람도 피력했다. 나아가 글로벌 금융 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특성을 잘 아는 투자 전문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그동안 오랜 시간 호주에서 생활하다가 기회를 찾지 못해, 혹은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기업이나 경제인들을 많이 봤다”며 “앞으로 많은 기업과 젊은 창업가들이 기회를 찾아 다양한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선관위 “21대 총선 재외선거 신고·신청자 17만7천여 명”

전체 재외선거권자의 8.24% 수준... 20대 총선보다 10.9% 증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투표 관련 홍보 포스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수가 17만7천9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월 17일 밝혔다. 선관위가 이날 오전 7시까지 집계한 결과, 이들 가운데 유학생·해외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재자는 14만 7천75명, 외국 영주권자가 대상인 재외선거인은 2만9천924명(영구명부 등재자 1만9천530명 포함)이었다. 이는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 214만여 명의 8.24% 수준으로, 지난 20대 총선의 15만9천636명보다 10.9% 늘어난 것이다.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총선의 재외선거 신고·신청자 수 12만4천424명과 비교하면 42.3%가 증가했다.

공관별로는 일본 대사관이 9천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호찌민총영사관(8천635명),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8천25명)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4만2천62명), 일본(2만3천158명), 중국(2만 797명) 순으로 이들 3개 국가가 전체의 48.5%를 차지했다. 재외 선거인 명부 등은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작성한 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16일 확정된다.

선관위는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수가 늘어난 이유로 ▲재외국민의 높은 관심 ▲인터넷 신고·신청 허용, 추가투표소 도입, 귀국 투표 보장 등 투표 참여 방법 개선 제도 정착을 꼽았다. 또한, 20개 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의 적극적인 활동과 한인 TV·라디오 CF 방영, 국제공항(인천, 김포)·항구(부산, 인천) 시설물 광고, 항공기 국제노선 기내광고,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재외국민 맞춤형 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선관위는 2월 24~27일 선거연수원에서 재외선거 투표관리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전 세계 116개국 164개 공관의 재외선거 영사 등 164명과 26개 추가투표소 관리자 29명, 4개 파병부대 투표소 등의 투표관리인력 10명 등 총 203명을 대상으로 2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교육은 재외투표소 설치 방법, 재외투표 관리 요령,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실습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재외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가 투표일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재외유권자의 소중한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흠 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의 하노이 거주 동포들이 4·15 총선에 투표하기 위해 2월 7일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고 있다.(사진·하노이한인회 제공)

## “50도짜리 백주로 손 세정… 다 필요 없고 의료품 좀”

중국한국인회 임원들,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 지원 호소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네 번째)이 2월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중국한국인회 총연합회 회원들로부터 중국 현지 동포사회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

중국 재외국민(교민)들의 모임인 중국한국인회 임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구호품 지원이 급선무라고 호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2월 7일 시청 시장실에서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박원우 회장 등을 만나 중국 현지 동포 사회 지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박원우 회장은 “구호품이 가장 시급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마스크가 없어서 먼 티셔츠를 잘라서 봉제해 쓰는 형편에 있고, 손 세정제가 없으니까 50도짜리 중국 백주를 대신 쓰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털어냈다. 이어 “사드 문제로 3년간 고통받았고, 작년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1년간 고생했다”며 “이제 좀 나아졌나 싶었더니 바이러스까지 오니까 폭탄을 맞은 격”이라고 토로했다.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이옥경 부회장은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공안들이 강제로 하차시킨다. 마스크 없이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공안이 수갑을 채운 경우도 봤다”며 “마스크가 가장 시급하다”고 거듭었다. 김관식 광저우(廣州)한국인회 회장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우선 의료품이라도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국인들은 ‘설중송탄(雪中送炭·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땀감을 보냄), 즉 어려울 때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는다는 전통과 인식이 있다’며 “이런 기회에 노력해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중국에 동포사회 온정 이어져

마스크 등 의료물품, 조선족 자치주·한국인회에 보내



민주평통 호주협의회는 2월 7일 중국 광저우 민주평통협의회에 마스크 1만개를 지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과 재중국한국인·조선족 동포를 돕는 동포 사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일본중국조선족연합회(회장 허영수)는 2월 18일 마스크 12만5천360개, 의료용 장갑 11만천 켤레, 방호의복 400벌 등 시가 2천만엔 상당의 의료물품을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에 전달했다. 이 물품은 자치주 조선족 사회에 보급되며 일부는 우한(武漢)시로 보내기로 했다.

중국아세아경제발전협회 권순기 회장이 비행편을 마련하는 등 재일조선족경영자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치바지회, 일불간사이조선족총회, 연변대일본교유회 등 연합회 산하 단체들과 도쿄생물학교, 재일본조선족작가협회 등 일본 내 대부분의 조선족 단체들이 온정에 참여했다.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사랑의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2월 11일까지 1천235만 원을 모금했다. 연합회는 마스크를 구매해 중국 내 10개 지역 한국인회에 보내기로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도 2월 7일 민주평통 중국 광저우(廣州)협의회에 마스크 1만 개를 보냈다. 이 밖에도 세계한인무역협회가 2월 초 중국 내 23개 지회·홍콩·마카오·타이베이·동남아 지회 등에 마스크 10만 개를 보내 회원에게 배포했고, 장영식·이명호·주업성 씨 등 재일동포 기업인은 중국 옌타이(煙臺)시에 바이러스 소독제인 ‘암소이온 촉매’ 8t 분량을 지원했다.

## 미국 주지사들, 주미대사관저에서 한자리... ‘한국 사위’ 가 제안

문 대통령 “위대한 한·미 동맹, 평화 완성의 숭고한 과제 앞에 서 있어”



2월 8일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NGA) 동계회의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세 번째가 이수혁 주미대사, 네 번째는 NGA 협회장인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사진·주미 한국대사관 제공)

주미 한국대사관은 2월 8일 저녁 워싱턴DC 대사관저에서 전미주지사협회(NGA)와 공동으로 주지사와 각계인사를 대상으로 리셉션을 개최했다. NGA는 미국 50개 주와 5개 자치령의 주지사들 모임으로, 매년 초 워싱턴DC에서 동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NGA 협회장을 맡은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이수혁 주미대사에게 공동개최를 요청해 주미대사관이 리셉션을 맡게 됐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한국 사위’로 불릴 정도로 친한 인사이며 재미동포 유미 호건 여사가 부인이다. 주미대사관이 이 행사를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리셉션에는 26명의 주지사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인, 미국 기업인, 각국 고위 인사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은 안보를 넘어 경제와 글로벌 협력까지 포함하는 위대한 동맹이 됐다”며 “지난 70년, 양국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전을 지켜왔고, 이제 우리는 평화를 완성해야 하는 숭고한 과제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 주지사들을 향해 “한·미 교류의 든든한 가교이며 양국 경제 동맹의 훌륭한 파트너”라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례를 언급한 뒤 “주지사들의 관심으로 255만 미주 한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연해주 항일독립운동 대부 최재형 선생 손자, 최 발렌틴 별세

조부 일대기 알리는 데 큰 역할... 러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으로 활동



지난해 러시아 극동 우수리스크에 세워진 최재형 선생 기념관에서 포즈를 취한 최 발렌틴 회장.

러시아 극동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대부인 최재형(1860~1920년) 선생의 손자 최 발렌틴 러시아 한국독립유공자후손협회 회장이 2월 14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최재형 선생 유족 대표인 최 회장은 1월 중순 큰딸이 사는 독일에 갔다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사고를 당해 경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독일 현지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뒤 2월 7일 모스크바 시립병원으로 옮겨져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형 선생 3남의 아들인 최 회장은 선생의 일대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러시아 고려인’ 월간신문 기자, 카자흐스탄 고려일보 모스크바 주재 기자 등으로 활약했다. 올해는 최재형 선생이 순국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이런 뜻깊은 해에 최 선생의 유족대표가 사고로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860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태어난 최재형 선생은 가족과 연해주로 이주한 후 자수성가한 동포 사업가다. 동포 후손 교육을 위해 많이 노력했던 그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조국 독립을 위해 힘을 쏟았으며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초대 재무총장을 지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최재형 선생은 1920년 일본군에 연행된 뒤 순국했다. 정부는 순국 42년만인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박선근 한·미 우호협회장, 美 조지아 주 ‘자유수호상’ 수상

“나의 성공스토리는 미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



‘조지아 공공정책재단’이 주는 ‘2020년 자유수호상’을 수상한 박선근 한·미우호협회장. 오른쪽은 카일 윙필드 재단 대표.

재미동포 박선근(77. Sunny K. Park) 한·미우호협회장이 미국 조지아 주의 대표 싱크탱크인 ‘조지아 공공정책재단’이 주는 ‘2020년 자유수호상(Freedom Award)’을 수상했다. 박 회장은 1월 28일 애틀랜타 다운타운의 폭스 극장에서 열린 수상식에 참석해 “1974년 단돈 200달러와 짧은 영어 실력을 갖고 미국을 찾은 초라한 젊은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기회를 준 미국에 감사하고, 항상 이를 갚아야겠다는 자세로 살아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인사회는 물론 주류사회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지아 주를 대표하는 자유수호상은 지금까지 클레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 필 그램 연방 상원의원 등이 수상했고, 박 회장은 29번째 수상자이다. 인디애나대에 유학 갔다가 정착한 박 회장은 빌딩 청소 용역업에 뛰어들어 10여 년 만에 25개가 넘는 주요 도시에 3천200명의 직원을 둔 GBM의 대표가 됐다.

박 회장은 자신의 성공스토리가 “미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타 한인회장과 동남부연합회 회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을 지내면서 한인사회에 봉사하는 한편 미국 유니세프 이사, 조지아 주 항만청 부이사장,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대통령 아·태 담당 정책 고문 등을 맡아 활동했다. 미국 독립운동에 불을 당긴 패트릭 헨리의 이름을 딴 “패트릭 헨리상”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받았고, 미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아메리카니즘 훈장’도 수상했다.

## 경남과기대, 재일동포센터 이어 ‘재일동포역사관’ 4월 개관



경남과기대 김남경 총장과 이상원 재일동포센터 센터장이 1월 9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를 방문해 ‘재일동포역사관’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과기대 제공)

경남 진주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총장 김남경)는 재일동포의 삶을 기록·보존·연구하기 위해 4월 30일 ‘재일동포역사관’을 개관한다고 1월 17일 밝혔다. 경남과기대는 지난해 10월 ‘재일동포센터’(센터장 이상원)를 출범시킨 바 있다. 센터 산하기관으로 문을 여는 역사관은 재일동포의 생활과 문화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연구하는 일을 맡게 된다. 재일동포 중심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등 동포 단체와 독지가로부터 유물과 자료를 기증받을 계획이다. 센터는 1월 7일 홋카이도 지방 민단으로부터 ‘설립 70년 발자취’를 담은 자료를 넘겨받았다. 1월 10일에는 김남경 총장과 이상원 센터장이 민단 중앙본부를 방문해 민단본부 산하기관인 재일한인역사자료관과 유물 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역사관은 경남 출신으로 일본에서 자수성가해 한일 양국에 기여한 동포 사업가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특별전시회도 열기로 했다. 센터는 이 밖에 재일동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당면 문제를 연구하는 ‘재일동포 연구소’, 동포 자녀들의 모국 유학·국내 학생의 일본 유학·단기 학생 교류 등을 지원하는 ‘재일동포 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동포들의 귀향과 정착을 돕는 ‘재일동포 마을 조성’ 사업에도 나선다. 김 총장은 “일제 강점기에 건너간 재일동포의 절반이 경남 출신”이라며 “다른 민족에 배타적인 일본에서 뿌리내린 기록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계 5위 롯데그룹 일군 재일동포 출신 사업가 신격호 회장

## 한국 제과 · 호텔 · 유통에 선구적 투자... 월드타워 '숙원' 이뤄

**‘사**업보국(事業報國). 사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뜻이다. 사업가들, 특히 창업자가 즐겨 내세우는 경영철학이자 이념이다. 1월 19일 99세를 일기로 영면한 신격호(辛格浩) 롯데 명예 회장 역시 창업자로서 사업으로 조국에 기여했다. 그는 재일동포 출신 사업가이다. 재외동포 가운데 현지에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례는 많다. 그러나 이주국가에서 시작한 사업을 조국 대한민국으로 가져와서 키운 사례는 매우 드물다. 신 회장은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 직후 잿더미 위에서 껌 팔아 시작한 사업을 70여년 만에 한국 재계 5위, 매출 83조 원의 대기업으로 키우는 ‘성공신화’를 썼다.

고인은 1922년 경남 울산의 한 농가에서 5남 5녀 가운데 맏이로 태어났다. 일제 탄압이 극에 이른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래도 부친의 남다른 교육열 덕에 울산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도립 종축장에서 기사로서 첫 직장을 잡았다. 하지만 가족과 자신을 위해 더 ‘큰일’을 하고 싶었던 스무 살 청년 신격호는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1941년 일본행 관부 연락선에 몸을 실었다. 도쿄에서 낮에 우유·신문을 배달하고 밤에 학교에 다니는 고단한 고학생이었지만, 특유의 친절과 신용으로 주문이 밀려들자 자신도 배달원이면서 배달원을 고용할 만큼 일찌감치 탁월한 경영능력을 드러냈다.

비누와 화장품을 만들어 재기에 성공한 뒤 껌 사업에 뛰어들었고 1948년 (주)롯데를 설립했다. 1980년대 중반 이미 롯



롯데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시작한 사업을 고국으로 확장해 재계 서열 5위 기업으로 키워냈다.

데는 일본에서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일본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고국으로 눈을 돌렸다.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선 제과업을 시작으로 고국 투자에 나섰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기필코 관광입국을 이뤄내야 한다는 게 나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그 신념의 첫 결실이 1973년 당시 국내 최고층 건물, 동양 최대 특급호텔로 문을 연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이었다. 유통 분야에서도 신 명예회장의 투자는 선구적이었다. 1979년 개장한 소공동 롯데백화점은 영세 백화점이 난립한 당시 유통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 백화점에 견줄 만큼 질적인 면에서도 독보적이었다.

신 회장의 고향 사랑은 남달랐다. 댐

건설로 고향 마을이 수몰되고 친·인척과 이웃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자, 이를 아쉬워한 신 회장은 1971년부터 자신이 태어난 마을(울산시 삼동면 둔기리) 이름을 딴 ‘둔기회’를 만들어 매년 5월 첫째 주말에 마을잔치를 열어왔다.

2017년 4월, 123층 높이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가 공식 개장했다. 신 회장은 “언제까지 외국 관광객에게 고공만 보여줄 수는 없다. 잠실 일대에 종합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세계적 명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룹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지로 밀어붙여 평생의 숙원 사업을 완성한 것이다. 고인은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 14일 만에 만난 세상은 ‘격리도시’... 놀랍도록 바뀐 상하이 거리

## 엘리베이터 단추 비닐로 덮어... 마스크 쓰고 장갑 낀 채 장 보는 손님

오늘은 기다리던 ‘출소일’입니다. 우한(武漢) 취재를 떠났다가 지난달(1월) 22일 상하이(上海)로 돌아왔으니 이날로 꼭 14일이 흘렀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방호복에 고글을 쓴 사람이 제 방 앞에 찾아옵니다. 자기 앞에서 체온을 재 보여달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체온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여기 ‘집중 관찰 시설’에 더 남아 할 겁니다.

체온계를 귀에 꽂고 결과가 나왔음을 알리는 ‘삐’ 소리가 날 때까지 흐르는 2~3초. 마치 초고속 카메라가 찍은 화면처럼 아주 천천히 지나갑니다. 체온계가 가리킨 숫자는 정상 범위인 36.4도. 저는 여행 가방을 끌면서 방호복을 입은 사람을 따라 복도 끝 비상계단 입구로 향합니다. 세상으로 다시 연결되는 출구입니다.

2주 만에 자유롭게 걷는 상하이의 거리 풍경은 다른 ‘평행 세계’에 온 것처럼 부쩍 달라져 있습니다. 오전 9시가 다 됐는데도 넓은 도로는 한산합니다. 새벽처럼 주변의 나무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분위기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짐을 잔뜩 들고 들어가려 하자 경비원들이 길을 막아 세웁니다. 얼굴을 알지만 어디서 왔는지 항공권 같은 증빙 자료를 내놓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받은 ‘관찰 해제 통지서’를 보여주자 그제야 대문을 열어 줍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는 ‘반(半) 봉쇄식 관리’에 들어간다는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2월 5일 상하이 창닝구의 한 백화점 슈퍼마켓 모습. 마스크에 보호 안경을 쓴 계산대 직원과 마스크를 쓰고 일회용 장갑을 낀 고객.

정문 앞에는 안에 들어오지 못한 택배 기사들이 놓은 물건들이 잔뜩 쌓여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들 위에는 비닐이 씌워 있습니다. 그다지 과학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손 접촉에 의한 감염을 줄여 보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 듯합니다. 집에 먹을 것이 있어야 하니 장을 보러 잠시 나갔습니다. 집 근처에서 걸을 수 있는 가게들은 모조리 문을 닫았길래 가장 가까운 백화점 지하 슈퍼마켓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었지만 1층엔 손님보다 지키는 직원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입구마다 선 경비원들은 손에 체온계를 들고 들어오는 손님의 체온을 잽니다. 지하 1층 슈퍼마켓에서는 그나마 먹을 것을 사러 오는 손님이 조금 눈에 띕니다.

마스크는 기본. 맨손으로 만지기 짹짹 했는지 일회용 장갑을 끼고 카트를 미는

손님들이 자주 보입니다. 계산대의 직원 역시 마스크도 모자라 눈 보호용 안경까지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로 넘쳤던 거리가 한산해진 지금, 2천만 상하이의 시민들은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4억 중국인 중 상당수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후베이 성을 벗어나 이제 항저우(杭州) 등 많은 동부 연안 도시들까지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이틀에 한 번, 한 명만 먹을 것을 사러 밖에 나가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 중국 전역이 거대한 ‘격리 도시’로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대운 연합뉴스 상하이 특파원  
\* 차 특파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에 현장 취재를 다녀온 후 상하이에서 중국 당국이 운영하는 격리 시설에 2주간 수용됐습니다.

# 종착역

## 전엘레나(카자흐스탄)

연해주

'엄마, 엄마' 어두움 속에 외친다.  
돌아가고 싶다고, 우리 집 그 동네  
'아빠, 아빠' 힘차게 부른다.  
바람 속에 바다 건너 사라지네. 목소리  
들리던 그 소리, 할머니 품에서 잠들어 들리던 그 소리.

강제이주

기차 안, 어두움 속에 들리는 통곡의 눈물이  
어머니, 영원히 사라져버린 어머니  
눈물로 언제일지 모를 재회를 꿈꾼다.  
종착역,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이곳의 갈대밭. 그 추위. 기억한다! 나는 영원히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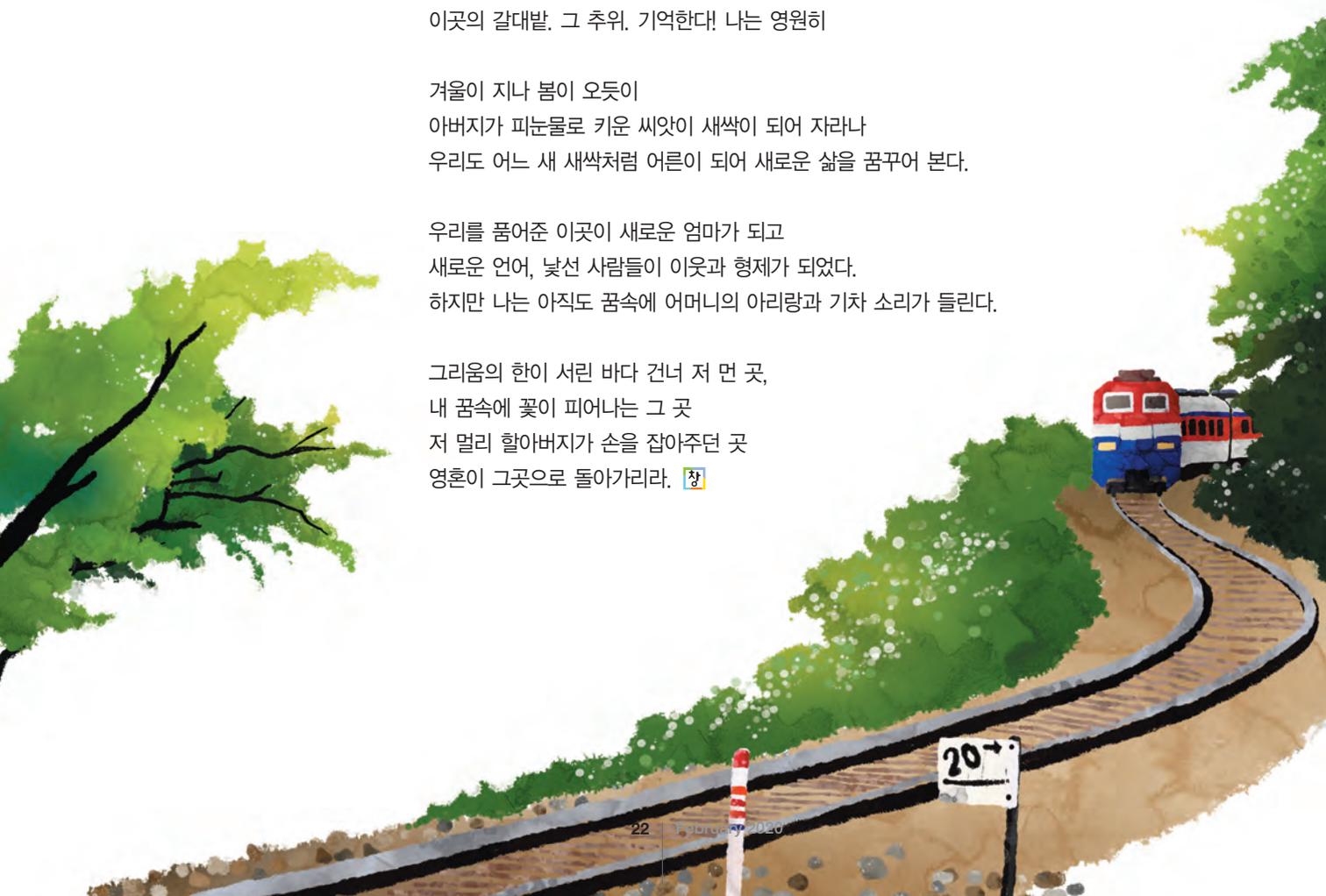
아버지가 피눈물로 키운 씨앗이 새싹이 되어 자라나  
우리도 어느 새 새싹처럼 어른이 되어 새로운 삶을 꿈꾸어 본다.

우리를 품어준 이곳이 새로운 엄마가 되고

새로운 언어, 낯선 사람들이 이웃과 형제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꿈속에 어머니의 아리랑과 기차 소리가 들린다.

그리움의 한이 서린 바다 건너 저 먼 곳,

내 꿈속에 꽃이 피어나는 그 곳  
저 멀리 할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던 곳  
영혼이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유럽 한인 차세대 한국어 응변대회, 3월 크로아티아서 개최**

유럽한인회총연합회(회장 유제현)는 3월 20~22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제9회 유럽 한인 차세대 한국어 응변대회'를 연다. 크로아티아한인회가 주관할 이 대회에는 유럽에 3~5년 거주한 한인 차세대들이 참가할 수 있다. 주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 한국인', '통일과 미래', '우리말 우리글', '나의 꿈' 등이다. 참가하려면 2월 29일까지 유럽총연 사무국 또는 거주국 한인회에 신청서와 추천서, 원고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재일 한인 대학생들 3월 나가노서 뿌리 의식 함양 '잼버리'**

재일동포 대학생과 일본 유학 중인 한국인 대학생 등 한반도 출신의 한인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0 동계 잼버리'를 3월 1~4일 나가노 현 마쓰모토 시에서 연다. 전문학교·단기대학교·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재일한국학생회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건너와 3, 4세가 된 청년들이 뿌리 의식을 함양하고, 한국과 일본 양쪽의 경계인이자 징검다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이동휘 선생 기념비 러시아에 세워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성재 이동휘(1873~1935) 선생의 기념비가 올해 상반기 선생의 주요 활동지였던 블라디보스토크의 중심지에 세워진다. 주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은 오는 6월 26일 블라디보스토크 파크롭스키 성당 인근 부지에 이동휘 선생의 기념비가 들어선다고 1월 30일 밝혔다. 기념비는 한국에서 제작될 예정이다. 이동휘 선생 기념비 건립은 블라디보스토크시가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고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정체성·자부심 생겨'... 재외동포 69명, 공주대 모국연수 수료**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은 러시아·우즈베키스탄·중국 등 13개국 69명의 재외동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국연수를 1월 30일 마무리했다. 학생들은 작년 9월부터 5개월간 '대학(원) 수확 준비과정'과 '한국이해 과정'에 걸쳐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한국어·한국사·한국문화 강의를 듣고, 전통문화 체험을 하며 현장 탐방을 했다. 국내 대학생과의 교류행사에도 참여했다. 1962년 시작된 재외동포 국내 연수 교육에는 지금까지 8천900여 명이 참여했다.

**LA 총영사관, 재외국민 투표소 2곳 추가 설치**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위는 4월 총선 재외선거를 위해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투표소 두 곳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추가 두는 투표소는 가든그로브 시에 있는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샌디에이고 시내에 있는 샌디에이고 한인회관이다. LA 총영사관은 "총영사관 투표소 외에 두 곳에 투표소를 더 늘려 재외국민의 편의를 돕고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 문 두드리세요"... 멕시코서 취업박람회**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중남미 취업을 원하는 한국 청년들을 이어주는 자리가 멕시코에서 마련됐다. 코트라(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2월 6일 멕시코 누에보레온 주 몬테레이에서 '2020 중남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청년들의 중남미 취업을 지원하고, 중남미의 한국기업들에 맞춤 인재를 소개하기 위한 이번 박람회에는 중남미에 진출한 28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110명의 구직자가 기업과 온·오프라인으로 1대 1 면접을 했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c@okf.or.kr)로 보내주세요

# “영화 ‘기생충’ 처럼 미 할리우드 영화계 한인들 성과 내기를 기대”

한우성 이사장 ‘할리우드 한인 리더 협회’ 발족 축하 행사 참석

미국 할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차세대 한인들의 모임인 ‘할리우드 한인 리더 협회’(Korean American Leaders in Hollywood, KALH)가 2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린 발족 축하를 겸한 네트워킹 행사에는 김완중 LA 총영사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버 임(Kimber Lim) KALH 대표, 데이빗 류 LA 시의원을 비롯한 할리우드 영화계의 차세대 한인인 배우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미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한인들의 모임인 ‘할리우드 한인 리더 협회’ 창립 및 네트워킹 행사가 2월 6일 LA 총영사관저에서 한우성 이사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완중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와 한국과의 밀접한 역사적 인연에 대해 언급하면서, “KALH 창립을 계기로 할리우드에서 성공적으로 활동 중인 영화계 주요 인사와 배우 등 차세대 한인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 사회 리더로서 지속

발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 한인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재외동포재단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라며 협회 발족을 계기로 차세대 한인들이 향후에도 활발히 네트워킹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 이사장은 이어 “최근 우리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처럼 할리우드에서도 영화계에 종사하는 차세대 한인들이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KALH 출범은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100여 명에 이르는 차세대 한인 리더들이 향후 자발적 모임을 통해 네트워크를 유지,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 재외동포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채용 지원 사업 MOU 체결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2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사장 김동만)과 ‘공공기관 단계별 채용 지원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무중심 채용 제도 수립 지원과 공정채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것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공단은 재외동포재단을 포함한 7개 업무협약 대상 공공기관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무능력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인재를 선별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형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소규모 공공기관의 채용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향후 공단은 공공기관의 요청 내용에 따라 직무기술서 작성부터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기관별 채용과정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 가

이드라인과 채용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검토, 서류·면접 평가위원 공유, 필기·면접 평가 문항 제공 등 단계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공단 측은 밝혔다.

2017년 7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직무능력 필기평가 시행 기관 수가 증가하는 등 공정채용을 위한 직무능력 중심 평가가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왼쪽)은 2월 6일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서울고용노동청 5층 웰컴룸에서 공공기관 단계별 채용 지원 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 재외동포 차세대를 '글로벌' (Glonacal) 인재로 키우자



**권오현**  
서울대 교수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인재는 사회적 관심사의 자리에서 바라본 인물상이다. 영재가 분야별로 탁월성을 보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인재는 시대적 필요와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유량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인재를 보는 눈은 시대마다 달라진다.

오늘날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의 하나를 '다양화에 대한 긍정 마인드'라 한다. 획일성에서 벗어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바탕 위에서 빠르게 성장할 동력을 함께 키워가는 것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다양성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에서 비체계적 흐트러짐을 나타내는 무질서와는 구분된다. 다양성은 공통 속성과 개별 속성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다양성을 통해 생명력을 지니게 되면 그들이 모인 전체에도 사회적 활력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차세대는 태생적으로 다양성의 기반 위에서 자라며, 미래인재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지닌 가장 큰 다양성 가치는 세계(global)와 한국(national)과 현지(local)가 교차하는 지점, 즉 '글로벌' (Glonacal)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지닌 글로벌의 세 구성요소, 즉 글로벌 역량, 한민족 의식, 현지 경험의 조화는 미래에 더욱 높은 차원의 경쟁력을 키워 줄 토대가 되리라 본다.

원래 글로벌 개념은 글로벌 시대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분석 틀에서 유래하였다. 글로벌이 개별 국가와 세계라는 이원구조 속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외국의 모범 사례를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반면에, 글로벌은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현재 서 있는 국가나 지역의 특성을 더욱 중시하는 입장이다. 글로벌은 한국인 정체성(한국어)과 지역 전문성(현지어)을 기반으로 세계 시민성(영어)과 조화를 이루며 그들 내부에 미래인재로 성장할 동력이 숙성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재외동포 차세대는 다중 문화 경험을 품으며 향후 관계형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인재들이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긍정 마인드, 낯선 환경에 다가가는 도전 정신, 외국어 구사에 대한 자신감 등 그들이 지닌 장점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것은, 내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내가 가장 아끼는 가치의 근간이 되었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고백도 같은 맥락이다. 미래 한민족의 우수 인적자원 확충을 국가적 과제로 여긴다면 이제 글로벌 인재상을 갖춘 재외동포 차세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



##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 제공  
차세대 한상 육성 및 한민족 경제영토 확장

- **주관:** 재외동포재단(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 **사업규모:** 한상기업 120여개사 / 해외인턴 200명 (연간)
- **인턴기간:** 180일
- **모집분야:** IT,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점 등 한상기업 희망 업종별
- **근무국가:** 미주,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 인턴 지원 자격

- 해외여행 또는 인턴 근무국가 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한상기업을 통해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자
- 만 34세(모집공고일 기준) 이하 최종 학교의 졸업자
- 또는 최종학년 재학중인자로 연수 종료 후 졸업 및 해외 취업이 가능한자  
※ 예외: 미국 J-1 비자 가능자
- 워킹홀리데이 VISA 발급 국가 지원자의 경우, 최소 9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 소비자  
- 단, 연중 워킹홀리데이 VISA 발급 가능 국가(호주, 독일 등) 지원자 제외  
- 워킹홀리데이 VISA국가 확인: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www.whic.mofa.go.kr](http://www.whic.mofa.go.kr))

### 참여방법 및 문의사항

- '한상넷' 홈페이지([www.hansang.net](http://www.hansang.net)) 공지사항 참고
- 재외동포재단 한상사업부([gotogether@okf.or.kr](mailto:gotogether@okf.or.kr), +82-64-786-0286)

## 2020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모국연수

동포재단은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소통과 상호간 유대감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모국의 사회·역사·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리더십 함양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2020 재외동포 중고생·대학생 모국연수'를 진행합니다. '2020 재외동포 중고생·대학생 모국연수'에 많은 재외동포 청소년의 참가를 바랍니다.

### 2020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

(OKFriends Homecoming Teens Camp)

기간 1차: 2020.7.15(수) ~ 21(화) (6박7일)

2차: 2020.7.29(수) ~ 8.4(화) (6박7일)

### 2020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OKFriends Homecoming Youth Camp)

기간: 2020.8.5(수) ~ 12(수) (7박8일)

### 신청방법 및 결과 확인

-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접속, 회원가입 후 개별 신청
- 2020. 4. 27(수) 이후 [www.korean.net](http://www.korean.net)을 통해 개별 결과 확인 또는 관할공관,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에 문의

**문의:** 차세대사업부 김주동 과장

(+82-64-3415-0193, [joo@okf.or.kr](mailto:joo@okf.or.kr))

##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 서독 이모

박민정(현대문학)

1990년대 붕괴한 동독의 독일인 물리학자 이모부와 독일 내 한인 이모를 둔 화자는 이모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려고 노력한다. 2010년대의 화자와 1990년대 독일에 있던 이모의 이야기가 병치 된다. 붕괴한 동독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던 독일 지식인과 그를 사랑했지만 버려졌던 한인 여자의 삶을 통해 이념의 갈등과 개인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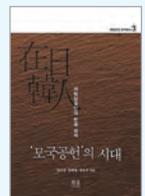


### '모국공헌'의 시대

정진성, 김백영, 정호석 (한울아카데미)

사회학, 경제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의 연구자들이 모여 재일동포에 관한 연구서적을 펴냈다. 이 책은 4개의 연구기획 서적 중 3번째

도서로 재일동포의 모국 기여와 공헌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연구서를 통해 그동안 일제의 억압과 차별만으로 기억되었던 재일동포의 새로운 이면들을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 압록강은 휴전선 너머 흐른다

강주원(놀민)

저자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 도시 단둥, 두만강과 압록강 일대에서 다양한 민족과의 교류 활동을 기록하였다. 해당 지역에는 남한, 북한, 중국, 북한화교 등 각기 국가는 다르지만, 다중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다. 휴전선을 넘은 지역에서 이념, 국가를 초월한 민족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화인류학적 시각으로 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



#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아넷으로



통할 [통]

## 함니다

75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아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코리아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 소통과 공감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회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5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